

인 사 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2016년 丙申年을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회는 1990년 창립하여 초대 정상섭 회장님을 비롯한 전임 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혈기 왕성하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기대되는 희망찬 학회입니다. 특히 제15대 회장을 역임하신 장진우 회원께서 세계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시어 우리 학회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태동기(1961년 창립 이전), 정립기(1960년대), 발전기(1970년대), 도약기(1980년대), 성숙기(1990년대)를 거쳐 지난 10년 간은 WFNS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학술지의 업그레이드, 영문 교과서 발간, 국제 학회와 교류 증진 등의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 현재는 정체기 아니 침체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회원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 증가, 전공의 지원 감소, 진료 환경 악화 등 매우 위축되고 있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10년은 세계 경제 및 의료계 대변혁이 예상됩니다.

우리 학회는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함은 물론 닥쳐올 미래를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2016년 정기학술대회를 “미래를 향하여”로 정하고 우리 의료계, 신경외과, 특히 정위기능분야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See the future, prepare the future, run to the future. 즉, create the future를 해야 합니다. Mission impossible을 mission possible로, impossible을 I'm possible로 바꿔야 합니다. 미래가 현실이 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미래는 사람이 만듭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초고령화시대, 복지사회에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퇴행성 신경질환 환자의 증가로 기능 수술의 수요가 확대될 것이며, 첨단장비의 발달로 우리 학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융복합, 맞춤형 치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래 신경외과는 정위기능 분야가 선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훌륭한 학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26일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회장 **김 성 호**

